

제17강 겿세마니 기도(22,39~46)와 빌라도의 재판(23,13~16)

1. 올리브 산의 기도

루카 복음사가는 만찬 방에서 올리브 산으로 나가신 예수님이 체포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번민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시했다(루카 22,39~46)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는 루카 복음사가가 마르코 복음(14,32~42)을 간략하게 재작성한 것이다. 두 복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심란해하시고 죽도록 슬퍼하셨다는 진술(마르 14,33~34)과 그분이 세 번이나 잠자는 제자들을 발견하셨다는 진술(14,40~41)을 생략했다(루카 22,45~46).
- (2) 루카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겿세마니’(마르 14,32; 마태 26,36)라는 히브리말 지명을 생략했다(루카 22,40).
- (3) 루카는 예수님이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셨다는 마르코 복음(14,38)과는 달리, 기도의 중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고 서술했다(루카 22,40,46).
- (4)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전통(마르 14,33)을 생략했다.
- (5) 루카는 예수님이 하느님께 탄원하시는 자세를 땅에 엎드리셨다(마르 14,35)고 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셨다(루카 22,41)고 해 예수님이 겸허한 자세를 취하셨음을 강조했다.
- (6) 마르코 복음(14,37)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하러 갔다 돌아오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는 것을 보며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한다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의 자세한 진술을 생략하거나 요약하며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자고 있었다고만 서술했다.

루카 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문학양식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서술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22,39)

둘째, 예수님의 경고(22,40)

셋째, 예수님의 기도와 천사의 발현(22,41~44)

넷째, 다시 경고를 받는 제자들(22,45~46)

1.2 도입(22,39)

예수님이 과월절 만찬을 끝낸 뒤에 가신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늘 밤을 보내시던 곳이다(루카21,37).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 갔다.

1.3 예수님의 경고(22,40)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 이르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마르 14,33.38)아니라 열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4)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께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기도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셨다.(루카 22,46)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다(루카 23,49)

1.4 예수님의 기도와 천사의 발현(22,41~44)

41절 : 이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경우보다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과 겸손을 더 강조한다.

42절 ㄱ : 예수께서 치워달라고 간청하신 ‘잔’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죄인들에게 마시게 한 심판과 진노와 운명의 잔이다(이사 51,17.22; 예레 25,15.17.28).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속죄의 희생을 당하시기에 그들에게 내려질 하느님의 심판도 대신 받으신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의 순종과 생명에 대한 집착 가운데서 죽음을 택해야 하신 인간적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아뢰어 죽음의 잔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셨지만, 그분의 일차적 관심사는 인류의 구원계획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것이다.

42절 ㄴ :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 계획을 바꾸어 주십사고 간청함으로써 아들로써 그분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데서 드러난다.

43절 : 천사의 발현은 하느님이 당신 뜻에 충실하기 위해 고통을 받는 의인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하느님은 다가오는 어둠의 힘(루카 22,53)과의 투쟁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예수께 주시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의 잔(루카 22,20)을 마실 태세를 갖추게 하셨다.

44절 :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고뇌에 휩싸여 더욱 애절하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시고 하느님께 무조건 의지하셨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서 상태가 극도로 긴장되어 피가 흐르듯 식은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흘러내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1.5 다시 경고를 받는 제자들(22,45~46)

45절 :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세 번이나 잠자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경고하셨다는 진술(마르14,37)을 생략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보다 그분의 기도를 더 강조했다.

46절 : 깨어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루카 22,53)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으며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루카 22,40.46). 잠자는 제자들은 일어서서,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기를 회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힘을 받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루카 22,32).

2. 빌라도의 재판(23,13~16)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진술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루카 복음사가의 고유한 전통이다.

빌라도의 재판(루카 23,13~16)의 문학양식은 예수님을 법정에서 세워 판결하는 이야기이다. 이 소송은 다음의 일곱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	14절	체포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에게 끌고 왔는데
2		고발	백성을 선동한다고
3		인정심문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보았지만
4		평결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5	15절	보조평결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6		석방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7	16절	사법적 경고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루카 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로데의 예수님 송환과 빌라도의 무죄선고(23,13~15)

둘째, 예수님을 매질하고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23,16)

2.2 헤로데의 예수님 송환과 빌라도의 무죄선고(23,13~15)

13절 : 그가 백성을 부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으므로 그분을 석

방하기 위한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러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기도 하고(루카 19,47~48),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등 변덕스럽기 짝이 없었다(23,18).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루카 23,4~5). 지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선고를 위해 애썼다. 맨 처음 그는 제사장들과 군중 앞에서 그분의 무죄를 선고한 뒤(루카 23,4)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고(23,6~12),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그분을 매질한 후 다시 석방의 뜻을 비쳤다(23,13~25). 이방인인 빌라도는 이러한 뜻을 세 번에 걸쳐 밝혔으나(루카 23,16,20,22) 예수님의 동포들은 그분을 배척했다.

14절 : 빌라도는 자신이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음(루카 23,3~4)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15절 ㄱ : 예수님의 무죄는 총독 빌라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지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도 인정한 것이다.

15절 ㄷ : 이 선언은 최고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고발한 모든 것, 즉 그분이 백성을 선동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가리킨다.

2.3 예수님을 매질하고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23,16)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전에 매질을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로마인들의 관행에 따른 매질이란 죄인이 피를 쏟으며 그의 살점이 떨어져나갈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가벼운 벌이었다.

빌라도는 매질로써 최고의회 의원들의 살기(殺氣)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친다(루카 23,18).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 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 즉 유다의 온 민족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